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6
각성 스님(화엄학연구원장) / 해심밀경(10월 28일)



흑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물체가 검게 보이듯 자신의 마음자리가 맑지 못하면 불성을 드러낼 수 없으니 <해심밀경>이 강조하는 문사수와 삼성 등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라고 역설하는 각성 스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설법할 내용은 바로 <해심밀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금강경>, <천수경>, <화엄경>, <법화경>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해심밀경>은 강원에서 교재로도 쓰지 않고 있고 또한 일반 대중들도 잘 모르는 경전입니다.

<해심밀경(解深密經)>은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중국 당 태종 당시 현장 법사가 인도에서 17년간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번역한 경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심밀경>은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너무 심오하고 비밀스럽고 은밀해서 중생들이 알기 어려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잘 풀이하고 해석해 놓은 경전입니다. 어떤 삼장 법사는 <해심밀경>을 <해절경> <상속해탈경> <심밀해탈경>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해심밀경>의 대의(大義)는 팔식(八識)을 전환하여

강설대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과
bongsunsa.net에서.
서울버스 매주 토요일 낮12시
조계사 앞 출발 (왕복 1만원)

“ 바로 듣고 사색하여
번뇌 속박 벗어나는
수행에 매진하세요 ”

사지(四智) 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법회 주제가 경전을 통한 수행의 깨달음인데 대중들의 이해를 돕고자 중국의 선사인 육조 혜능 스님의 이야기를 조금하겠습니다. 혜능 스님은 오조 홍인대사에게 법을 받아 제33대 6조라는 가장 높은 대선지식으로 그 문하에서 수천명의 선자들이 배출되어 오가칠종을 형성할 정도로 중국을 선종 일색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육조 혜능 스님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起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조 홍인 대사의 법을 전수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참선하는 공안 화두법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니다. 탐마 대사는 이심

전심으로 법을 전하셨지만 <금강경>과 <능가경>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오조 홍인 대사는 <능가경>이 분량도 많고 난해하기에 오직 <금강경>만 독송하도록 가르치고 전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도 혜능 스님이 <금강경> 해석하는 법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은 선종, 교종 구분할 것 없이 수행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당 이후 송나라 때 중국에서는 선종이 유행하며 1700 공안이 만들어져 경전공부하는 것보다 오직 공안을 참구해서 깨치는 수행법이 정착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상근기는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문망생사(頓忘生死)라. 한 말씀 들을 때 나고 죽는 생사를 단박에 깨닫는 그런 상근기도 있었고 중근기나 하근기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경전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을 거쳐서 수행의 지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모든 경전에는 수행하는 법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능엄경>에는 25통(通) 수행법이 있는가 하면 관세보살의 듣는 것을 들이켜 듣는 반문(反問)공부가 있습니다. <원각경>에는 사마타(奢摩他), 사마발제(三摩跋提), 선나(禪那) 등 삼관(三觀) 수행법이 있고 <대승기신론>에서도 선종과 지혜를 지관문(止觀門)이라 해서 지관으로 수행하

금강산 직접 봐야 절경 알듯 깊은 지혜 터득위해 정진하길

는 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심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태학이나 화엄학에서는 <해심밀경>이 법상종의 경전이라고 해서 격을 좀 낮추어서 말한 조사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해심밀경>에서는 부처님이 삼시교(三時敎)를 논했는데 초기에는 <아함경>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고정관념, 즉 눈으로 보고 듣는 여러 가지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중기에는 <반야경>을 말씀하셨는데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경전입니다. <아함경>보다 차원이 높은 무상(無相)의 진리인 모든 상(相)을 초월한 상이 없는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마지막 제3시에서는 중도 사상, 유상과 무상을 초월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변을 떠난 그러한 진리를 <해심밀경>에서 주장하셨습니다.

<해심밀경>이 <금강경>이나 <아함경>보다 상위에 속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셈이지요.

<해심밀경>에서 설하신 내용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문사수(聞思修) 삼매(三慧)와 삼성(三性)을 논한 것입니다. 바로 듣고 사색하고 뒤는다는 것이 문사수 삼매인데 이 가운데 문해와 사해는 번뇌를 떠나지 못한 차원에서 수행하는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에 불과하지만 수혜는 번뇌와 오염 속박을 떠난 차원 높은 단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은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의타기성(依他起性), 원성실성(圓成實性)입니다. 변계소집성은 우리 범부 중생들이 두루 온갖 쓸데없는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쓸데없는 집착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공꽃은 본래 없는 것인데 논쟁이 난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것입니다. 또한 밤에 산을 가다가 고목나무를 보고 저것이야 귀신이다, 도깨비다, 도적이다 라고 착각해서 겁을 집어먹는다면 그것 또한 변계소집성에 의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고목나무에는 도깨비도 없고 허공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범부들은 원래 무상한 것

이고 무어인데 '내가 있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 아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육식(六識)의 번뇌를 차단하고 삼명육통의 지혜를 개발해서 무아의 진리를 깨달은 분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허망한 것을 보고 허망한줄 몰라 병든 눈으로 허깨비를 보는 것처럼 마음에 번뇌의 병이 납니다. 흑색 안경을 쓰고 물체를 보면 물체가 흑색으로 보이고 청색 안경을 쓰고 물체를 보면 청색으로 보입니다. 물체 자체는 흑색도 청색도 아니지만 색안경을 쓰고 볼 때 색에 따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와같이 중생들은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집착을 떠난 본래 진공묘유의 진리를 모르고 허망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습성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만 모든 사람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나를 도와 달라, 좋게 해 달라, 나의 기분을 맞춰 달라, 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지 왜 남이 나를 사랑 해달라고 요구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중생심이 바로 변계소집성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간파하심 겁니다.

이러의 정신으로 중생을 이익 되게 살아 가는 화생의 정신, 봉사의 정신, 모든 중생을 두루두루 가족같이 보살피는 그 정신이 바로 보살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야말로 변계소집성을 떠나지 않고는 일으킬 수 없는 것이지요. 변계소집성을 떠날 때 보살의 정신이 싹튼다는 것입니다.

삼성 가운데 제2성은 의타기성으로 일체 만물이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법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 혼자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콩의 씨앗이 인(因)이라면 콩을 가꾸는데 필요한 물과 흙, 태양의 온도, 비로 같은 것은 연(緣)에 해당됩니다. 콩이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결과로 원래는 인과라고 합니다. 인연법은 인연과(緣果)의 삼단계를 거칩니다.

불교에서는 처음에는 인연이 있다고 했지만 인연의 깊이가 따지면 인연도 본래 없는 것입니다. 인연성공(因緣性空)이라. 인연의 성질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인연이란 한 생각을 일으킬 때 생기고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져서 생각을 초월해 버리면 인연법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인연으로 생겼다고 하는 것을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경(火鏡)을 쬐고 대고 잘 조이면 연 태양열이 모아져 불이 붙어 타게 됩니다. 만약 쬐거나 화경, 태양 그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불이 붙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인연 조건이 맞아져 불이 생기게 됩니다. 이 비유는 생겼다 사라짐은 무상의 진

“ 마음병 생겼으면
일단 생각 그치고
자세히 살펴야 ”

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며 병든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색안경을 벗어놓고 보면 물체가 본래 여러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백색이면 백색, 투명체면 투명체로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살기가 어렵고 힘들 때, 슬프거나 괴로울 때, 근심 걱정이 많을 때 사람들은 비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래 비관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여유롭게 잘 사는 사람들의 경우 낙관적으로 살기를 살아가지만 마음은 본래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의 거품이 생긴 것이지 거품이 없는 본래 파도, 파문이 없는 물은 축축한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内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說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의식집을 펴면 편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교의식은 불교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교의범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 제1장 승주편
- 제2장 예경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공편
-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생
- 제7장 제불보살경의의식
- 제8장 점안편
- 제9장 이운편
- 제10장 수계편
- 제11장 고사편
- 제불보살
- 파불의식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간 만물지중엔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엔 유인이 最上貴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細部까지 집필한 의식집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조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집이 합장하고 고계 속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리야 바라밀

- 제1장 시식편
- 제2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 제4장 사십구齋
- 제5장 재공편
- 제6장 기제사
- 제7장 靈魂結婚壇
- 제8장 매장 埋葬
- 제9장 入齋(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 제10장 삼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정청 영산대제 괘불이운 건희소 영산법회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인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 출판부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F:017-361-1131 ☎ 043) 264-3008, H.F: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